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http://www.kvca.or.kr)

KVCA 이슈

## 2018년 주요 산업별 전망과 시사점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11.2)’ 요약

ICO 시장의 급성장에 긴장감이 도는 벤처캐피탈 업계



# 03

##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04 KVCA 소식

-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
- 제2차 기자 간담회
- 2017 벤처창업 진흥 유공 시상식

### 05 연수원 소식

- 12월 교육 안내
- 「2017년 글로벌 벤처캐피탈리스트 인재 양성 과정」 개최
- 「2017년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개최
- 「2017년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개최

### 07 투자 협력·M&A

- 벤처투자컨벤션
- 온라인투자매칭 플랫폼 : Venture IR
- 벤처투자 사랑방
- 환경산업 투자유치지원
- 유망 환경기업 해외투자로드쇼
- 2017 글로벌 M&A · 투자유치 컨퍼런스 개최

### 10 R&D 사업

- 글로벌스타벤처 육성사업
- 기술혁신 투자연계 과제
- 창업성장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 12 협회장 동정

- 2017 함께성장 중소벤처 일자리 박람회 참석
- 아주경제 10주년 창간행사 참석
- 여성벤처협회 19주년 기념식 및 포럼 참석

### 13 회원사 소식

### 15 투자 유망기업 탐방

- (주)에이다스원

# 17

## 이슈 ISSUE

### 18 2018년 주요 산업별 전망과 시사점

### 21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11.2)' 요약

### 24 ICO 시장의 급성장에 긴장감이 도는

벤처캐피탈 업계

### 26 벤처캐피탈 법률 Q&A

발행일 2017년 12월 10일(통권 114호 12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오세현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7

## 시장 동향 Market Trend

### 28 10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34 (VC 포커스) 2017년 3분기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37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

본회는 11월 24일(금) 서울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방향과 벤처투자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의 사안을 발제하고 토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 과장, 투자회수관리 과장 및 본회 이용성 회장을 포함한 창투사 대표 10명 등이 참석하였다.

## 제2차 기자 간담회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1월 28일(금), 협회 회장단 및 언론사 30여 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신 벤처투자 시장 통계 및 특징에 대한 분석 설명을 필두로, 국내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협회 김형수 전무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의 특징과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대표 변호사는 벤처투자 환경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업계의 현안을 발표하고,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가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도 가졌다.



## 2017 벤처창업 진흥 유공 시상식

정부는 벤처창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매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시상은 벤처·투자·창업·지식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30일(목) 코엑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5점이 수여된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엘비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산

업포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대통령 표창),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국무총리 표창),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안상준 부사장(중기부장관 표창), 포스코기술투자 정홍준 상무(중기부장관 표창)가 각각 수상하였다.

### 2017 벤처창업 진흥 유공 '투자 활성화 부문' 수상자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엘비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단체)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안상준 부사장	포스코기술투자 정홍준 상무

## 12월 교육 안내

- **행사명:**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과정(벤처투자론)  
- 고려대학교 멘토링데이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려대학교
  - **일자:** 12월 2일(토)
  - **대상자:** 벤처투자론 강의 수강생 및 해당 대학(원) 재학생 중 벤처캐피탈에 관심 있는 학생
  - **행사 개요:** 현직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초빙하여 업계 이슈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 관련 정보 습득,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마련
- 
- **교육명:** 2017년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고급과정
  - **운영 형태:** 1박 2일 합숙
  - **일자:** 12월 7일(목) ~ 8일(금)
  - **대상자:** 창투자, LLC, 신기술금융사 기획 관리 및 경영지원실 담당자 등
  - **과정 개요:** VC 기획·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2017년 글로벌 벤처캐피탈리스트 인재 양성 과정」 개최

연수원에서는 해외 투자에 대한 이해도 촉진 및 글로벌 감각 배양을 위해 올해 글로벌 벤처캐피탈리스트 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였다. 글로벌 벤처캐피탈에 대한 교육생들의 관심도를 적극 반영하여 본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일자** 2017년 11월 1일 ~ 11월 23일 (주 2회 8일 출석)
- **장소** 서초동 월헌빌딩 B1 회합실2 /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주요국 벤처투자 법률 및 규제 ① 공통사항 ② 국가별 사례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중국] 산업 동향 및 전망, Tax, 투자·회수 사례	엘비 인베스트먼트 VC 부문 대표 / 사장 박기호
[일본] 산업 동향 및 전망, Tax, 투자·회수 사례	Y&ARCHER 이사 이경호
[미국] 산업 동향 및 전망, Tax, 투자·회수 사례	알토스벤처스 대표 김한준
[특강 I]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미국·유럽 / 게임	바이너리 대표 김경현
[유럽] 산업 동향 및 전망, Tax, 투자·회수 사례	엑센트리 코리아 대표 천재원
[특강 II]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미국 / ICT / 서비스	센드버드코리아 팀장 이예겸
국내 VC의 글로벌 진출 전략 및 사례	에스엠시노기술투자 이사 이현
[특강 III]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미국 / 바이오 / 의료	충남대학교 약학과 부교수 신영근
[동남아] 산업 동향 및 전망, Tax, 투자·회수 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수석팀장 유정호
해외 투자 펀드 운용현황 및 해외 기업 Valuation	케이티비네트워크 전무 김창규
해외 투자기업 심사보고서 작성, Due-Diligence 및 Value-up	어센도벤처스 대표 이정석
영문 계약서 작성 실무	Cosmos Incubator 변호사 / 대표 이종경

## 「2017년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개최

본 교육은 11월 15일부터 3일간 벤처캐피탈 및 금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업종별 사업 타당성 분석과 비상장 회사의 투자계약서 작성 사례, 업종별 재무제표 주요 이슈 등의 실무를 습득하며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 **일자** 2017년 11월 15일 ~ 11월 17일 (2박 3일 합숙)
- **장소**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2층 파인홀

내 용	강 사
업종별 Valuation & Pricing ① 기업가치 분석 ② 재무 분석 및 추정 ③ Case Study	수 인베스트먼트캐피탈 대표 이현재
업종별 분석 사례(사업 타당성 등) - 게임/디지털 콘텐츠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이사 박재찬
업종별 분석 사례(사업 타당성 등) - ICT 서비스/유통	영신창업투자 이사 이홍세
업종별 분석 사례(사업 타당성 등) - 바이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팀장 김요한
업종별 분석 사례(사업 타당성 등) - 제조/전자/부품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이사 정영관
업종별 분석 사례(사업 타당성 등) - 문화콘텐츠&프로젝트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상무 유동기
업종별 IPO 사례 분석(Valuation 및 사례)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업종별 재무제표 주요 이슈와 Due Diligence	신정 회계법인 이사/회계사 박상학
투자계약서 실무 및 사례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초기기업 투자와 4차 산업혁명	어센도벤처스 대표 이정석

## 「2017년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개최

올해 마지막 전문인력 보수교육인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교육을 11월 29일 개최하였다. 교육 만기일(교육 이수 내역이 없는 경우 임명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임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본 교육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및 업계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법률적인 이슈 등이 다루어졌다.

- **일자** 2017년 11월 29일 (1일 출석)
- **장소** 서초동 VR 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및 ISSU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최근 입법 동향 및 해외 벤처투자 법령 비교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투자계약서 관련 제도 개선(안)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 및 사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파트너 정찬목



## 벤처투자컨벤션

본회는 11/30(목)부터 12/2(토)까지 창업 통합 대축제인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Startup Festival 2017)」에서 벤처캐피탈과 중소·벤처기업 간 만남의 장 「2017 하반기 벤처투자컨벤션」을 코엑스 3층 C홀에 개최하였다.

「2017 하반기 벤처투자컨벤션」은 투자설명회와 투자상담회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설명회(IR)는 6배수 기업을 모집하여 20개사를 선정하였고 투자심사역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투자상담회는 3일 동안 중소·벤처기업 160개사와 벤처캐피탈 60개사가 참여하여 기업별 투자 상담을 3회 이상 진행하는 등, 총 534회에 달하는 대규모 만남의 장이 조성되었다. 창업 통합 대축제에서 벤처캐피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17 하반기 벤처투자컨벤션」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본 행사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산업 인식개선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에 앞서 본회는 지난 2월 28일 동대문 DDP에서 「2017 상반기 벤처투자컨벤션」을 개최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과 VC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2016년 8월부터 연 2회 개최되어 현재까지 363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 투자설명회 선정기업 자료는 'Venture IR'의 [기업검색 ▶ Online IR] 메뉴에서 확인 가능
- Venture IR : [www.ventureir.or.kr](http://www.venturei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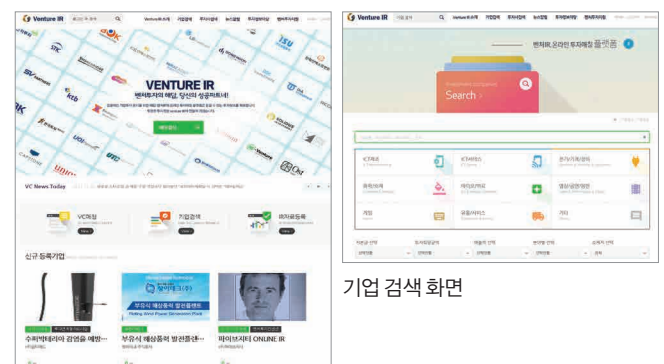
큰 역할을 하였다. 본회는 벤처투자컨벤션뿐 아니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벤처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후 지속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 온라인투자매칭 플랫폼 : Venture IR

본회는 유망벤처발굴을 위한 온라인 투자매칭 지원 플랫폼 'Venture IR\*'을 오픈하였다. 벤처투자정보센터의 벤처캐피탈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플랫폼으로써 공식적이고 정확한 벤처캐피탈 정보를 투자유치 희망 기업들에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 심사역에게는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전용 플랫폼이다. 본회는 'Venture IR'을 통한 투자기관과 기업 매칭으로 투자설명회, 투자 상담 등 오프라인 미팅을 연계 지원하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투자유치지원의 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링크** ([www.ventureir.or.kr](http://www.ventureir.or.kr))



Venture IR 메인 화면

기업 검색 화면

## 벤처투자 사랑방

### 11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회는 지난 21일 '11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였다. 에이텀 등 중소·벤처기업 9개사와 CKD창업투자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 조달에 관한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에서는 투자기관이 직접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벤처투자 중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기업과 투자기관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 덕에 참여 기업과 투자기관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매월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 참여 신청 링크 (<http://cafe.kvca.or.kr>)

## 환경산업 투자유치지원

### 2017 환경투자 콘퍼런스

지난 11월 01일(수) 「2017 환경투자 콘퍼런스」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2013년부터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친환경 장비 표면처리 업체인 테크트랜스와 삼호그린 인베스트먼트가 10억5,000만 원 규모, 산업용 세정제 및 열교환기 제작 업체인 이노센스와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가 3억 원 규모로 투자계약을 체결, 이날 총 13.5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삼호그린 인베스트먼트 민경철 상무의 벤처캐피탈 동향 및 환경기업 투자유치전략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유망 환경기업인 환경플랜트 전문기업 유진에코씨엘, 산업용 공기정화시스템을 생산하는 올스웰의 공개 IR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또한 벤처캐피탈 총 20개사와 24개 환경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투자 상담은 벤처캐피탈과 환경기업 간 1:1 매칭을 통한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유망 환경기업 해외투자로드쇼

지난 11월 08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유망 환경기업 해외투자 로드쇼」가 중국 베이징에서 3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 해외투자로드쇼는 중국 현지 벤처캐피탈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펄프보드를 생산하는 지앤택과 화학 용액 누출감지 테이프 센서 시스템을 생산하는 아바오 등 유망 환경기업 4개사가 참석해 현지 투자전문가 및 기업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현지기업 및 벤처캐피탈 총 48개사가 참석해 공개 IR 및 상담회를 이어나갔다. 로드쇼에 참가한 4개사 모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합자회사 설립, 자금투자 등의 제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 산하 유일한 경제 관련 협회인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를 방문해 협회와 환경기업 간의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17 글로벌 M&A·투자유치 컨퍼런스 개최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1월 21일(화)~24일(금) 중국 광저우 및 선전에서 「2017 글로벌 M&A·투자유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M&A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 판로개척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M&A 지원센터·자문기관 추천 우수 기업 등 10개사가

참가해 현지 대기업, 투자기관, 정부 기관 등 약 50여 명의 수요그룹과 1:1 매칭 상담, 기업 IR 등을 진행하였다. 이들 참여기업은 사전에 중국 현지 VC 등 전문가를 통해 사전 심사 및 선별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자상담 및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글로벌스타벤처 육성사업

### 글로벌 R&D 전략 세미나 개최

본 회의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IP 활용전략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허 분석 전문기업 세미나 '글로벌 R&D 전략세미나'를 11월 16일(목) VR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략세미나는 본 회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선정기업의 IP 활용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선정기업 11개사가 참여하였다. 행사는 세미나, 질의응답 및 코칭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세미나 참여기업에는 특허 기술 분류를 활용한 자사 기술 관련 맞춤형 IPC/CPC 정보, 소송 및 특허 리스크 콘텐츠, PatentPia GoldenCompass 콘텐츠 등 IP 전략 수립에 필요한 3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회의는 글로벌 R&D 전략세미나 외 선정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진출 세미나, 해외투자기관 매칭데이, 해외 현지 로드쇼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법률상담회 개최

본 회의는 11월 23일(목) VR빌딩에서 법률이슈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전문 법무법인(이중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후)과의 1:1 상담회를 개최했다. 참여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M&A, IPO 관련 질의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후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 Design Day 개최

선정기업이 겪고 있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부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전문가(김지홍 대표, 디자인 스펙트럼)와의 1:1 상담회를 11월 23일(목) VR빌딩에서 진행했다. 참여기업은 프로덕트 디자인, SW와 App의 UI/UX 등 개발 중인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코칭 뿐만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툴의 비교와 선택, 복수의 프로젝트 추진 시 팀 및 포지션 구성, 신규 디자이너 채용 등 디자인 매니지먼트 역량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질의하고 상담을 받았다.

### 영문 IR 자료 코칭

본회는 선정기업을 대상 한 해외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영문 IR 자료 코칭'을 지난 11월 23일(목) VR빌딩에서 개최하였다. 현업 투자심사역(서병희 이사, DEV Korea)의 1:1 코칭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해외 VC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참여했다. 본회는 코칭 외에 선정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자 미국, 중국, 동남아 등

본회 및 한국벤처투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Global Top-tier VC에 IR자료를 배포하는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VC 추천을 통해서 모집·선정한 만큼 해외 VC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 기술혁신 투자연계 과제

### '15년도 선정기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본회는 2015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수행기업 31개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건전한 경영 활동 및 재무구조 유지를 지원하고자 회계법인이 방문하여 기업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을 실사하고,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자금흐름, 세액공제,

회계 및 재무정보 활용 등에 대해 자문했다. 본회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당면한 이슈 해결을 위해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수행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성장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 '15년도 창업성장 선정기업 멘토링

본회는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제4차 멘토링 현황 보고'를 실시했다. 진행된 멘토링은 선정기업에 대한 멘토의 성실한 멘토링 수행 여부 확인 및 주관기관의 건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 이내인 2015년도 대상기업 59개사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본회는 멘토가 제출한 멘토링 보고서를 검토하여 수행기업의 경영현안을 파악하고 기술개발 성과와 더불어 사업화에 필요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017 함께성장 중소벤처 일자리 박람회 참석

본 회 이용성 회장은 10월 31일(화)에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7 함께성장 중소벤처 일자리 박람회에서 공동기자회견과 개막식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은 중앙회장, 중기단체협 회장단, 기자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중기단체협의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이어 11시부터 이어진 개막식에는 정부, 주최기관, 협력기관, 중기업계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테이프 커팅과 개막 퍼포먼스를 함께하였다.



## 아주경제 10주년 창간행사 참석

11월 16일(목) 서울 FKI 전경련타워 1층에서 진행된 아주경제 창간 10주년 기념행사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행사는 아주경제에서 주최하고 (사)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GEFRI), (사)아시

아방송포럼, (사)한중기업가연합회, 아주 M&C에서 주관하였다. 1부는 비전토크, 2부는 비전선포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여성벤처협회 19주년 기념식 및 포럼 참석

창립 19주년을 맞은 여성벤처협회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포럼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11월 8일(수) 산업은행 IR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성 벤처, 혁신 저고리 2018'을 주제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빈이 무대 앞으로 나가 기념 떡 커팅을 통해 창립 19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였다.





## 회원사 소식

## NEWS &amp; REVIEW

## 네오플렉스

‘LP 지분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탑선에 투자했다. 탑선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였는데 2010년 15억 원을 처음으로 투자한 지 8년 만이다. 탑선은 태양광 모듈 등 전기장비 제조업체로 국내 태양광 사업은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성창업투자

‘대성 세컨더리 투자조합’은 지난달 아주 IB 투자로부터 피엔에이치테크 주식 3만 6,000주를 3억 원에 인수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피엔에이치테크의 유상증자를 통해 전환상환우선주 8만 4,000주를 배정받았다. 투자금액은 약 7억 원으로, 구주 인수를 포함하면 대성 창투의 총투자금은 10억 원으로 세컨더리 펀드의 주목적 투자를 위해 신주 외 일부 구주를 인수한 것이다.

## 송현인베스트먼트

930억 원 규모의 ‘송현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를 결성했다. 이 펀드는 송현인베스트가 설립된 이후 결성한 가장 큰 규모의 벤처조합으로 에너지인프라 자산운용이 750억 원을 출자해 앵커 LP를 맡았다. 한국 벤처투자의 모태펀드에서 90억 원, 대구테크노파크에서 40억 원을 보탤다. 나머지 50억 원은 송현인베스트먼트가 직접 출자했다. 이번 펀드의 대표 펀드매니저는 윤관식 상무가 맡는다.

## 수림창업투자

인력을 잇달아 보강하며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김현중 이사와 하형석 수석심사역이 투자본부에 합류했다. 김현중 이사는 메릴린치, 삼일회계법인 등을 거쳐 포스코 기술투자자와 빅베이신캐피탈에서 활동한 시니어급 벤처캐피탈리스트다. 하형석 수석심사역은 KTB투자증권과 벤처포럼인베스트에서 경력을 쌓았다. 수림창업투자는 꾸준히 펀드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두 심사역 외에도 계속해서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글로벌파트너십펀드’를 통해 최근 미국 IT 업체 게임바이스에 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게임바이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게임 패드를 개발하는 업체다. 세마트랜스링크는 설립 이후 미국 등 해외시장을 주 무대로 삼은 국내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해왔다. 한국에 기반이 없는 미국 현지기업에 투자한 것은 게임바이스가 사실상 처음이다.

## 아주아이비투자

기술가치평가 기업에 대한 빠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주 좋은 TCB 펀드’는 최근 와이브레인을 비롯, 디에스테코노, 콰타매트릭스, 오비에스코리아, 프로그린테크 등에 총 7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투자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등 주요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용 TCB 기술등급’ 상위 5등급(T5)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다.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벤처스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 민족 기업가치가 2012년 투자 당시보다 약 70~80배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2년에 각각 5억 원씩 투자하였고 2014년 후속 투자를 단행한 상태이다.

##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HB 유망서비스산업펀드’를 통해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에 투자했다. 지난해 50억 원에 이은 추가 투자이다. 이 기업은 맥주의 ‘세대교체’를 목표로 2014년 초 충북 음성에 설립된 기업이다.

## 엘비인베스트먼트

2015년 ‘미래창조 LB 선도기업투자펀드 20호’로 GTF의 전환상환우선주 70억 원어치를 인수하고 이후 무상증자와 보통주 전환을 통해 보통주 44만 6,700주를 보유해온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의 투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투자차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매각 규모는 약 23억 2,800만 원이다.

## 이에스인베스터

약정총액 120억 원 규모의 ‘이에스 3호 디지털 콘텐츠 창업 초기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번 조합의 만기는 8년으로 윤종연 대표가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았다. 창업 초기기업 투자가 주목적인 조합인 만큼 기준수익률은 0%다. 조합의 앵커 LP는 모태펀드로 약정총액의 65% 정도인 80억 원을 출자했다.



## 자이텍벤처투자·이후인베스트먼트

공동 운용(Co-GP) 중인 'A&F 미래성장산업화 투자조합'은 썬리취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5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낙농품 도매업체에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투자다. 1994년 설립된 썬리취는 피자용 치즈 등 낙농 제품 전문 업체로 설립 이후 20여 년간 수입, 가공, 생산, 물류, 유통 등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고, 신선한 치즈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마련하며 아시아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치즈 전문 그룹으로 성장했다.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250억 원 규모의 'KB NEW 콘텐츠 투자조합'의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펀드에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주)조선방송(TV조선)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콘텐츠 전문제작·배급사가 출자자로 참여했다.

## 케이큐브벤처스

75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 46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목표 금액의 64%가량을 확보한 셈이다. 올해 하반기 모태펀드를 비롯한 여러 국내 주요 LP들의 최종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결과다. 지난 7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한국 IT 펀드(KIF)로부터 180억 원, 모태펀드 3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130억 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으로부터 TCB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150억 원을 출자 약속받은 바 있다.

## 포스코기술투자

조미김 브랜드 '명가김'으로 알려진 삼해상사에 농식품 수출육성 펀드에서 10억 원, 농심 캐피탈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산업 펀드에서 20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삼해상사는 국내 최초로 조미김을 개발한 기업이다. 해외 수출도 개척해 이미 1999년에 500만 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 한국투자파트너스

중국 국가 투자기관 등 10여 곳의 현지 기관투자자와 중국 신약개발기업에 투자에 나서 중국 내 신약개발기업 KBP 바이오사이언스가 발행한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했다. 이번 글로벌 투자에는 한투파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사 '글로벌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이평위보' 등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투자금은 6,300만 달러(704억 원)가량이다. KBP 바이오사이언스는 2011년 중국 산둥성 진안(제남)에 설립된 신약개발 기업이다.

## 한화인베스트먼트

한화증권이 한화인베스트먼트의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신사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화인베스트먼트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 관리·운용사업을 135억 원에 양수하기로 공시했다.

##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김지훈	김지훈, 김봉수 (공동대표)

## 사무실 이전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우리종합금융	서울시 중구 명동길 55 (명동1가, 태흥빌딩 11층)	서울시 중구 명동길 55 (명동1가, 태흥빌딩 8층)

## 세계 일류 ADAS 기업을 향하여 (주)에이다스원

지난 27년간 디지털 한글 및 다국어 폰트를 개발하여 각종 OS와 오피스프로그램은 물론,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에 전 세계문자를 공급해오던 (주)한양정보통신이 2013년 임베디드 비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스마트카 커넥티드 사업 중 하나인 ADAS 솔루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주)한양정보통신 임베디드 비전 연구소는 'ADAS ONE'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율주행 핵심 기반인 ADAS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으며, ADAS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 닷컴에서의 펀딩 성공과 함께 2015년과 2016년 CES 전시회에서 자동차 안전부문의 Innovation Award를 수상하는 등 그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2015년 산업자원부의 국책연구과제 '교차로 AEB 등을 지원하기 위한 HD급 다중 화각 전방 카메라 시스템 개발'(총사업비 : 49억 원)과 미래부의 '교통약자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ICT 융합 UI/UX 시스템 개발' (총사업비 : 28억 원)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DAS ONE은 2017년 모회사인 (주)한양정보통신으로부터 분사하여, '(주)에이다스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있으며, 스마트카 분야에서의 빠른 성장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세계 톱5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가 되겠다는 비전하에 모든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ADAS 기술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DAS 전문 기술과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ADAS ONE'이라는 전략적 브랜드를 만들어 이미 북미 및 유럽에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미국 법인명 또한 'ADAS ONE'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AONE : ADAS All-in-One ●



지난 2월 ADAS ONE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첫 제품인 AONE이 출시되었습니다. AONE은 개인용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하면 ADA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그동안 고가의 자동차 옵션이나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해 왔던 ADAS 제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형태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미 AONE은 지난해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뛰어난 킥스타터 후원자들의 호응을 얻어 펀딩에 성공한 바 있으며, ADAS 시장에서 (주)에이다스원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한 2017 스마트앱 어

월드에서 엔터테인먼트부문 최우수 앱으로 선정되는 등 디자인 및 모바일 관련 전문가로부터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AONE은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잠재 바이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 산업 환경에 따른 테스트 및 적응 과정을 거친 후 디스트리뷰터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에이다스원은 AONE에 이어 트럭 및 버스, 택시 등 상용차를 위한 전문 ADAS 시스템 HM310이 오는 2018년 1월 시장에 출시됩니다.

● HM310 : ADAS Mono Camera System ●



'HM310'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ADAS 기술이 반영된 형태로 카메라와 스크린이 결합된 디바이스입니다. 향상된 ADAS 기능과 더불어 후방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까지 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HM310은 After Market에 적합한 제품이면서도, 향후 완성차 업체들을 위한 Before Market 진출에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법안'을 실시하여 20톤 이상의 화물차와 9미터 이상의 버스에 HM310과 같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할 경우 구매금액의 80%인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장착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화 방침은 대형 버스, 화물차뿐만 아니라 택시는 물론, 3.5톤 이상 화물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HM310은 정부에서 정한 차로 이탈 경고(LDWS)뿐만 아니라, 앞차 추돌 경고(FCWS) 및 주행 중 녹화기능인 Car DVR 기능까지 안전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구현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제품으로 'HX520' 역시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급형 스마트카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HX520은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선인식은 물론, 승용차와 버스, 트럭,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구분, 보행자 인식 및 신호등 인식까지 운전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식기반을 딥러닝으로 구현하였으며, 단순 경고 장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자동긴급브레이크시스템(AEBS)을 기존 상용차에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는 2018 CES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HX520 : Deep Learning SW for Autonomous Driving ●



그동안 (주)에이다스원이 축적해온 약 10만km의 주행 영상 DB와 차량인식, 보행자 및 신호등 인식기술을 HX520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HX520을 Development Kit으로 제공함으로써 산학협력은 물론 B2B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다양한 커넥티드 카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함께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에이다스원은 산업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ADAS 카메라시스템 개발 주관기업으로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80% 이상을 연구 개발 인력으로 구성(박사 2명, 석사 7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30% 이상을 R&D 비용으로 재투자하는 등 기술기반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에이다스원은 협회가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지원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주)한양정보통신 김준 이사(02-2279-140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팀(02-2156-2135)



이슈

I S S U E



# 2018년 주요 산업별 전망과 시사점

- 회복, 그러나 체감할 수 없는 회복<sup>1)</sup>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대우 (경제연구실장)



## 들어가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개선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2018년에는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벤처투자 환경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산업경기는 제조업에서 일정 부분 회복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내수 산업인 서비스업에서는 뚜렷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18년 주력 산업별 경기 국면을 예측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 본고는 「현대경제연구원(2017),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경제 주평, 17-43.」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 주요 산업경기 전망

국내 주력 수출산업들을 먼저 살펴보면 2018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가 수출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회복 국면을 넘어 강한 확장 기조를 보일 것이 예상되는 산업은 IT산업이다. IT 산업군 내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품목의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 시장 내 다수 공급자 간 경쟁 격화 등 요인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으로 자동

차산업은 세계적 수요 회복 기조가 경기 상승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시장에서의 부진이 2018년에도 이어질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내수시장의 경우 수입차 선호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철강산업은 시장수요 회복으로 일정 부분 개선의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이어져 큰 폭의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업의 경우 전방산업인 해운업이 국제교역 회복으로 침체를 벗어나면서 일정 부분 그

후방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신조선가(新造船價, 신규 건조되는 선박 가격)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운시장에서 선박량(공급량)이 물동량(수요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당분간 선박에 대한 신규수주가 큰 폭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계산업**은 대내외 경제 상황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동기가 성장의 주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신흥국 중심의 세계 경제회복 기조가 수출 경로를 통해 국내 기계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다만 국내 장치산업 상당수가 이미 산업 성숙 단계에 이르렀고 SOC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므로 내수시장 회복 속도가 다소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2017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호황국면을 지속하였다. 2018년에도 국제유가의 상승 기조와 시장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된 수요처인 중국시장의 성장 둔화와 자급률 상승 등 제약 요인의 부정적 영향으로 산업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2018년 가장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건설업**이다. 최근 건설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급감하여 경기 후퇴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우선 주택 부문에서 최근 지방 중심 미분양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으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대폭적 감축은 토목 건설 경기를 가라앉게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수 산업인 **서비스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민간소비 의존 산업의 경우 전반적 경제회복 기조의 영향을 받아 업종 경기가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구매력에 대조하였을 때 고용시장은 실물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후 한참이 지나야 개선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시장 구조변화가 자칫 기업의 인력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실화된다면 가계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이 정체되며 소비산업의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한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운송업**의 경우 역시 경기 회복 영향으로

여객과 화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 간 이동 여객과 물량담당 항공 및 해운업의 수요 증가 속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외형상의 여객, 물량 증가와 산업군 내 기업 이익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특히 해운업의 경우 최근 운임 단가에 개선조짐을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과잉공급 우려가 진행 중이므로 산업이 감내할 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관광서비스업**의 경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발단된 한중 간 갈등이 마무리되며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어 2017년에 비해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반면 **금융산업**과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은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정책과 주택 경기 냉각으로 2017년보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끝으로 **IT 서비스업**의 경우 SM(System Management) 및 SI(System Integration)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기업 수요 증가로 회복 기조가 강화될 것이 전망되나, 통신업 등 가계 수요에 의존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맺으며

2018년 예상 산업경기의 흐름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회복’이다. 가장 큰 동인은 세계 경제 상황 개선이 교역 및 자본 이동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에 훈풍을 가져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그 바람의 세기는 작은 나뭇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커다란 범선을 밀어줄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는 산업별로 차해 있는 상황에 따라 눈에 띄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오히려 불황 국면으로 역진(逆進)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물론 2018년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시장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산업경기 회복을 준비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sup>2)</sup> 프레임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고려할 때 업종을 막론하고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 그러나 체감할 수 없는 회복’ 그것이 2018년 산업경기의 키워드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산업별로 직면한 대내외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벤처캐피탈이 특유의 모험성과 개척정신을 발휘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 주기를 바란다.

2) 뉴노멀이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이전, 즉 세계 경제가 고성장과 호황을 구가하던 시대(노멀)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된 의미는 글로벌 저성장이다.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11.2)’ 요약

- 투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추진 배경

### 국내 혁신 창업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 창업생태계의 활력 저하, 창업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등 역동성 저하로 전통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착화

### 창업 양적 확대,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미흡

-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유럽·미국·중국 등 주요국 대비 절반 이하 수준
- 성공 가능성이 큰 석 박사급 등 고학력 우수인력 창업 부족

### 주요국 대비 벤처투자 부족 등 모험자본 역할 미흡

### ‘투자→회수’, ‘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

-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로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제약

### 점진적인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불 조성·확산에는 미흡

- 벤처투자액 증가, 벤처기업 급증 등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점진적·분절적 정책으로 민간중심의 벤처 불 조성에는 한계

## 추진 방향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

-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한 통합 여신모형\*의 개발·적용 유도(‘17년 시범적용 → ‘20년 본격 적용)
- 기술력 높은 기업이 투·융자를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보에 5,000억 원 투자연계보증제도 도입
  - 벤처캐피탈협회·모태펀드와 협력\*하여 대상기업을 선정·지원하고, 보증요건·요율·범위 등을 우대\*\*

\* 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벤처캐피탈협회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 벤처투자금액 50% 이내 보증심사 면제, 0.5%p 보증료 감면, 창업 7년 내 전액보증

###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

-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외자유치펀드(現 1.4조 원) 추가 조성

###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10조 원 규모 혁신 모험펀드 추가 조성

- 주요국 수준\*으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 조성

\* 혁신 모험펀드 조성·투자 시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15년 기준)에서 ‘20~’22년 중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15년 기준 美 0.33%, 中 0.24%)

- 혁신 모험펀드는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

-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 원 내외의 재원은 ①펀드 회수재원·②재정·③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

- 혁신 모험펀드는 보통주 투자 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하고, 모태·성장사다리 등 공공펀드 간 운영·투자연계 강화

### 모태펀드의 국정과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지방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 피투자기업의 고용성과에 비례한 성과보수 제도 도입 추진

- 子펀드 결성·투자·회수 단계별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인장치를 마련

\* (결성단계) 지역기업 투자 비중을 높게 제안하는 운용사에 모태펀드 우선 출자

(투자단계) 펀드 조성액의 일정비율을 지역기업 투자 의무화

(회수단계) 지방투자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손실금 일부를 우선충당

- 혁신기업, 대학·출연연, 특허관리 전문회사 등의 신기술 분야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지적 재산권 사업화 전용 펀드 신설



###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 은퇴자·선배 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

현행		개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000만원	5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 (현행) 투자 시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

###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 확대

-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발행 한도를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
  -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두 허용
  -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現 7억 원)를 소액공모 한도(現 10억 원) 확대와 연계하여 상향 검토

-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전매제한·광고 등 분야의 완화된 규제\*를 현장에 적용(9.28일 자본시장법 개정)

\* (투자 한도) 기업당 年 200→500만 원, 총 年 500→1,000만 원  
(전매제한) 1년→6개월 / (광고) 인터넷포털 등 광고허용

- 창업 7년 내 기술 우수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일반인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 일반 국민들도 소액으로 손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 정비

\* (현행)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50인 미만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 방식으로만 결성 가능 → 일반 국민들의 참여 제한적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시 조합결성·업무집행·해산 등 조합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 마련
- 현행 창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을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동일하게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투조합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 개인이 창투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同一행위·同一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 벤처법·창업법에 분산된 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
  -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주도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최소화
- 국내 벤처투자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주기적인 통합적 통계생산 의무화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자유로운 진입·투자를 위한 규제혁신

(★ 혁신 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

-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창투사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10.17일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선
자본금 요건	50억 원	20억 원
전문인력 자격요건	국가 자격증, 학위 소지자	창업·투자 경험

-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이 자유롭게 자금 운용·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범위·방식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

- (투자대상) 일률적·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 의무 투자 비중(40%)을 창업투자회사 규모별로 차등화
- (투자범위) 사회통념에 벗어난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하고 쉼 업종에 벤처투자 허용(현재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투자 제한)

- (해외 투자) 창투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해외 투자 제한을 완화

\* (현행) 국내 창업기업 등에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선투자한 후에만 해외 투자 가능

- (투자방식) 다양하고 혁신적인 투자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예시 : SAFE\*) 허용 검토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태 투자 방식

- 현재 개인 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포함) 결성\*을 허용
- \* (현행)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만 결성 가능

## 코스닥·코넥스·K-OTC 시장기능 회복·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코스닥]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 촉진
- \* (예시) 코스피·코스닥·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
-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관행 재정비\*
- \* (예시) 테슬라 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 보장)을 완화하는 방안 등
-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및 공시 확대
- \* (예시) 과거 5년간 대규모 횡령·배임, 회계 분식 등이 발생하였거나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상장 제한
-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現 최대 30%)

### [코넥스]

- 코넥스 시장이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 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 원 → 20억 원) 등 제도개선 추진

### [K-OTC]

-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

## 연기금과 대형 IB의 코스닥시장 투자확대 유도

-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예시 : 10%) 확대 유도
- \*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현재 연기금의 벤치마크 지수는 "KOSPI 200" 중심으로 구성
- 연기금 투자자의 코스닥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 운용평가\* 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 배점(現 5점/총 100점) 확대 검토

- \* 기금 운용 성과 등을 종합평가 → 평가결과 우수 시 경영평가 가점 등 부여
- 초대형 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

## M&A를 저해하는 기술·인력탈취 제재 강화

- 기술탈취가 M&A보다 쉽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대폭 확대 검토
- \* (현행)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개선)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
- 대기업 등의 기술유용 행위 억제를 위해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직권조사 강화

## 대기업 등의 M&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 대기업의 M&A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3년 → 7년)
- 중견·대기업 등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 (현행) 인수·합병 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 → (개선) 삭제
- 혁신형 M&A를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검토

## 해외 자본의 국내 M&A 시장 참여 지원

- 중국 등 해외 VC와 국내 스타트업 간 정례적 만남의 장 제공
- \* 한·중 합작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국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 국내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M&A 매물정보를 확보, 해외투자정보망(CrunchBase 등)에 적시 제공

## 연대 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실패 부담 완화

-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 보증제를 폐지('18.上)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책 병행 -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하여 보증심사 시 활용하고, 주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유도
- \* 법인과 대표자 간 자산 등의 명확한 분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제삼자 검증, 경영투명성 확보 여부 등
- 민간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 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체결 추진
- \* (예시) 신·기보가 제공한 80% 부분보증서 대출인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



## ICO 시장의 급성장에 긴장감이 도는 벤처캐피탈 업계



스타트업이 가상화폐를 통해 본격적으로 자금조달을 시작하게 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 소재 벤처캐피탈 회사 맨그로브 캐피탈 파트너스 소속 마이클 잭슨 파트너는 “소위 잘나간다는 스타트업들이 최근 들어 암호화된 토큰(cryptocurrency tokens), 즉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벤처캐피탈이 향후 ICO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궂대 높던 벤처캐피탈이 기업가치 제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업을 직접 설득하고 ICO와의 경쟁에 나서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ICO(Initial Coin Offerings, 가상화폐공개)는 기존에 기업이 주식을 시장에 공개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s, 기업공개)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기업이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 인터넷 등 공개 시장에 출시해서 불특정 다수인 개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ICO는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인데 일반 벤처투자같이 회사 지분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ICO를 통해 조달한 투자금은 프로젝트 시작에 개발 비용으로 사용되며, 가상화폐 구매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이더리움은 가장 성공적인 ICO 사례다.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이더를 발행, 판매해 약 2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5조 원이 넘는다. 프로젝트 일부를 판매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는 리스크를 안는 대신 수익

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투자와 비슷하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일반인 투자를 받는 점에서는 오히려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하지만, 킥스타터(Kickstarter,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와 같은 중개인이 없을 뿐이다.

한편, 맨그로브의 잭슨 파트너는 이전에 스카이프(Skype, 인터넷 통화 서비스)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벤처투자를 받기 위한 과정을 겪었기에 기업과 투자자 양쪽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는 벤처투자를 받는데 대체로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꺼린다면, 현재 투자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과 함께 ICO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최근 가상화폐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30분 만에 찍어 낼 수도 있고 값이 오르면 바로 매각할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가치가 급등하게 되었으며, ICO에 대한 인기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의 현재까지 ICO 조달 금액은 24억 달러(2017년 3분기 기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같은 기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금액 72억 달러 및 VC 투자금 약 7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 출처 : 코인데스크(CoinDesk), 스태티스타(Statista), 피치북(PitchBook)

한편 전 세계 관련 당국은 ICO 이면에 있는 버블, 시세 조작 및 금융 사기 등과 같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사기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ICO를 제한하기로 한 중국에 이어 한국도 최근 ICO를 금지하는 데 합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9월 29일,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 ICO를 전면 금지하는 발표를 내려 가상통화 거래법을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법률에 의거, 불법행위로 정의 내린 바 있다.

블록체인의 이사회 멤버로 재임 중이기도 한 유명 벤처캐피탈 투자자는, 이처럼 아직 무법지대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 조만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생기는 등 질서가 잡히고 세계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ICO가 가진 장점 중 하나로, 기업과 투자자 간 계약서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으로 자동 암호화돼 가상화폐에 담기는 기능을 언급했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을 서면이 아닌 디지털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 계약 조건 이행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거래 조건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거래 내용이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

ICO의 또 다른 장점은 기업이 지분(소유권)을 파는 대신 자산, 즉 토큰을 팔기 때문에 창업자들 또한 경영권 분쟁이나 투자자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IPO 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처럼 투자에 대한 이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역시 기업에 있어 편리한 부분이다.

한편 ICO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벤처캐피탈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 회사인 폴리체인 캐피탈은 최근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결성해 가상화폐 및 ICO에 투자했다. 이 투자금은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안데르센 호로비츠 및 세쿼이어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럽의 대형 벤처캐피탈 중 하나인 인텍스벤처스의 공동 창업자(Co-Founder) 닐 라이머는 “ICO는 벤처캐피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IPO 시장까지 대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VC)는 스타트업에 자금뿐 아니라 필요한 멘토링과 네트워크 등의 도움을 제공하며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해 낼 것이다”고 전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는 추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ICO에 대한 회계처리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가 미비한 탓에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고 사기 피해의 위험성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도 큰 ICO 시장이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줄이었던 벤처캐피탈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7년 10월 3일 자로 Financial Times(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된 기사 “Venture Capital investors urged to wake up to ICOs”를 번역한 것으로 본 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대표소송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 Q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권의 내용

종류	소유 주식비율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주주대표소송권	100분의1 이상 (상법 제403조)	10,000분의1 이상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1. 의의

-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상법 제403조)
- 이익 공여 관련 대표소송(상법 제467조의2), 불공정인수 관련 대표소송(상법 제424조의2), 발기인의 책임추궁 대표소송(상법 제324조), 청산인 책임추궁 대표소송(상법 제542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으로 인한 이득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자본시장법 제172조 제2항) 등이 있으나, 이사의 책임추궁 대표소송에 한정하여 살펴
- 공익권의 일종

### 2. 소제기 요건

- 이사의 책임 ;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또는 주주 자신의 손실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함, (ii) 법령, 정관위반, 임무 해태 등 외에 회사와 이사 간 거래상 채무이행의 청구까지 가능(다수설), (iii) 퇴임 후에도 가능
-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회사의 해태 ; (i)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먼저 청구하여야 함, (ii)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감사가 대표하므로 청구는 감사에게 하여야 함. 단 감사를 두지 않는 소규모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 (iii) 감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 소제기 가능(상법 제403조 제3항). 단, 기간을 경과 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내 가능

### 3. 소의 당사자

-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sup>1)</sup>(상법 제403조)
- 위 요건은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및 소제기 시점에 구비하여야 함
- 제소 당사 위 요건을 구비한 이상 이후 감소하여도 무방함. 단 주식을 전부 처분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 피고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이사이었던 자

### 4. 소절차

- 관할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 고지와 참가 ; 회사에 대한 고지와 참가제도 인정(상법 제404조 제1항)
- 주주의 담보제공 ;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상법 제403조 제7항, 상법 제176조 제3항, 제4항)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화해 등 ; 제소주주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취하·포기·화해 등을 할 수 없음(상법 제403조 제6항)

### 5. 재심

- 원·피고의 공모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하게 하였을 경우 재심 허용(상법 제406조)
- 회사 또는 주주가 재심청구 가능. 주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소수주주가 아니라도 무방함

### 6. 제소주주의 권리 의무

- 대표소송 또는 재심의 소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5조 제1항 전단, 상법 제406조 제2항)
- 주주가 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상법 제405조 제2항)
- 대표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대표소송의 원고가 된 주주에게도 미치므로 동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4. 2. 19. 결정 2013마2316)

1)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1 이상(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시장 동향

MARKET TREND



## 10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10월 신규결성조합 주요 현황

### 아이디, 화이

아이디벤처스와 화이인베스트먼트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422억 원 규모의 공동 운용 펀드를 결성했다. 콘텐츠 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20% 범위에서 문화 섹터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아이디벤처스는 문화펀드를 처음 운용한다.

### 에스비아이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364억 원 규모의 코넥스 활성화 펀드를 결성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코넥스 상장기업이 예상되는 기업 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이다.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는 14년도에 결성한 1차 코넥스 활성화 펀드의 운용사이기도 하다.

### 유니온

유니온투자파트너스가 156억 원 규모의 소액투자 전문 펀드를 결성했다. LP로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콘텐츠 제작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소셜과 웹툰 관련 지식재산권이나 관련 초기 기업이다.

- 2017년 10월에 5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펀드 2개, 창업 초기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인 아이디벤처스와 화이인베스트먼트의 'HUAYI-IDV 콘텐츠 투자조합'이 422억 원으로 가장 컸고,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의 'SBI-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유니온투자파트너스의 '유니온 슈퍼아이피투자조합'이 각각 364억 원, 156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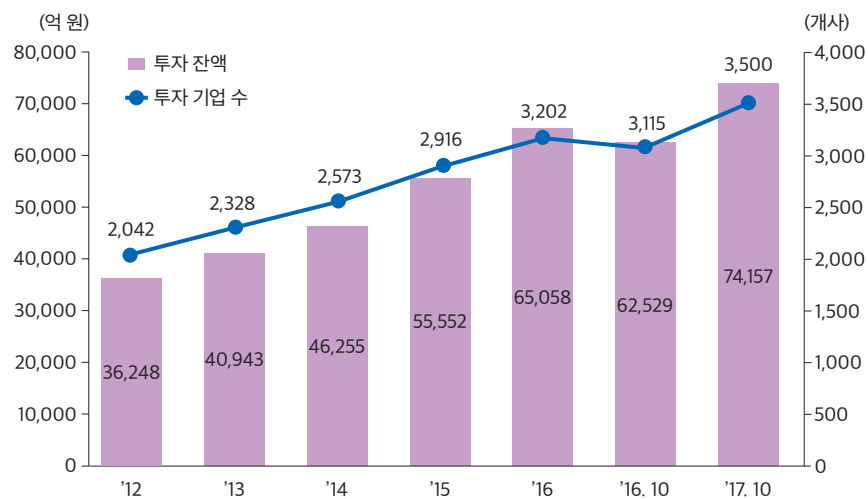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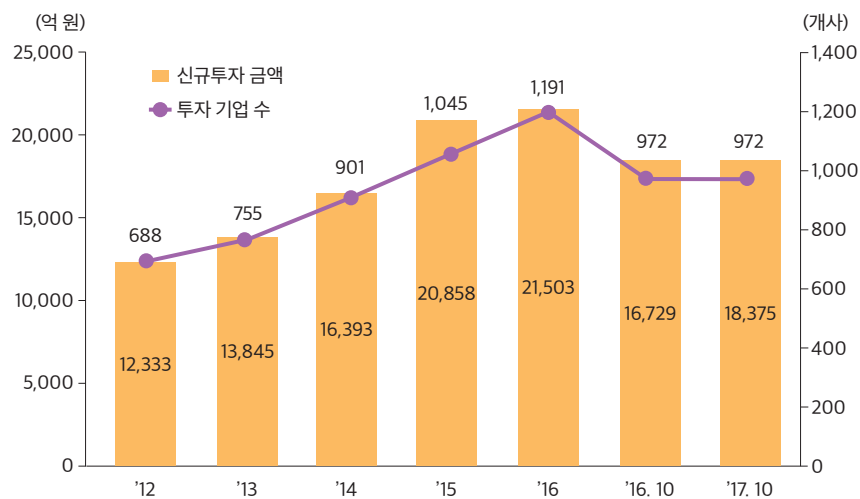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아이디벤처스, 화이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HUAYI-IDV 콘텐츠 투자조합	422	문화	문화 기타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SBI-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364	일반	중소·벤처 일반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창투조합	유니온 슈퍼아이피투자조합	156	문화	문화 기타
비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BSK 6호 특허기술 투자조합	150	일반	특허
이에스인베스터	창투조합	이에스3호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투자조합	120	창업초기	중소·벤처 일반

# 10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신규투자

###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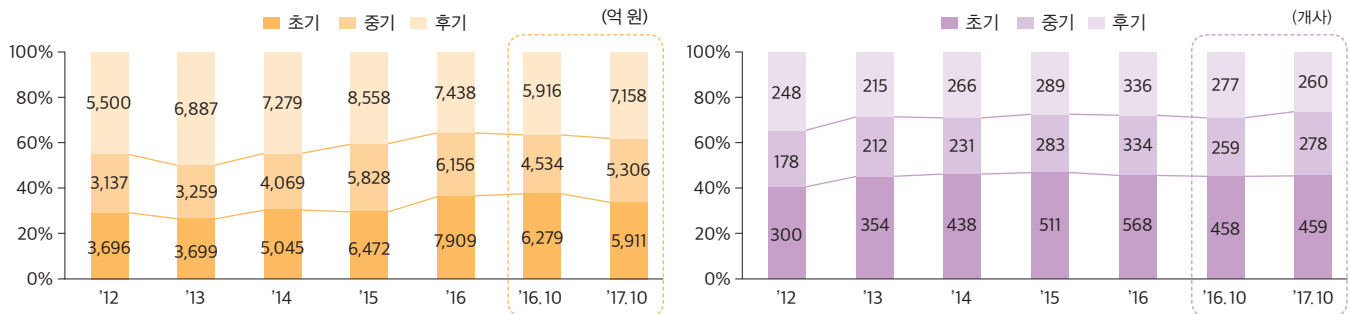
- 금년 10월까지 신규투자는 18,375억 원으로 전년 동기(16,729억 원)보다 9.8%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972개사로 전년 동기(972개사)와 동일하였다.
- 10월에는 아이큐어가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비티씨코리아닷컴, 쉼타매트릭스, 테라핀테크, 이문메드, Innoviz Technologies, 데일리, RANELAGH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10월까지 3,500개 업체에 7조 4,157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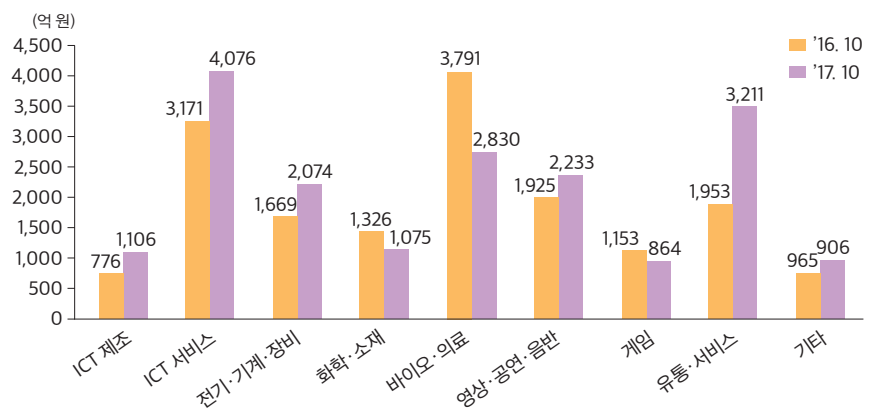
## MARKET TREND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10월까지 후기기업 투자 비중이 39.0%로 가장 컸으며, 초기기업 32.1%, 중기기업 28.9%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4,076억 원, 유통/서비스 3,211억 원, 바이오/의료 2,830억 원, 영상/공연/음반 2,233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25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961억 원으로 가장 큰 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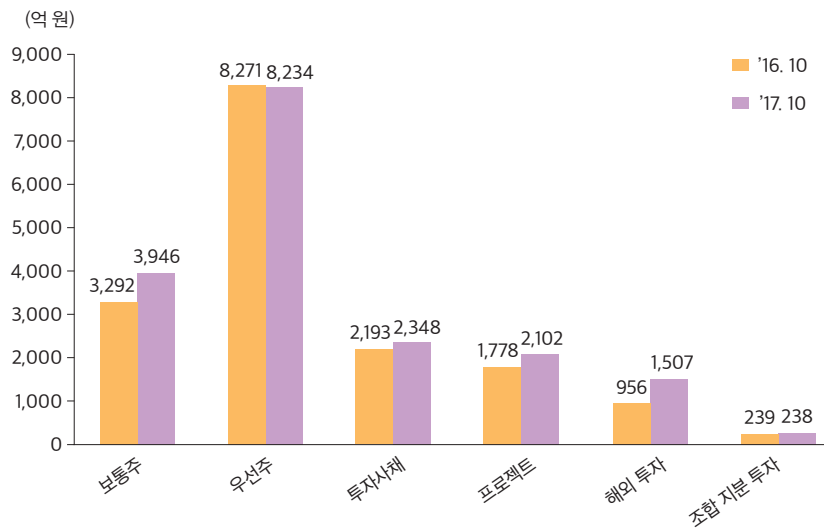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10	2017. 10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779	1,106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3,171	4,076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1,669	2,074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1,326	1,075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3,791	2,830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1,925	2,233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1,153	864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1,953	3,211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965	906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6,729	18,375

## 10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8,234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3,946억 원으로 21.5%였다. 해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51억 원 증가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19.7%) 대비 1.8%p 증가한 21.5%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1.4%로 전년 동기(10.6%) 대비 0.8%p 증가하였다. 해외 투자 비중은 8.2%로 전년 동기(5.7%) 대비 2.5%p 증가하였다.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10	2017. 10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3,292	3,946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8,271	8,234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2,193	2,348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1,778	2,102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956	1,507
조합지분투자	0	0	0	152	271	239	238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6,729	18,375

- 지역별로는 서울(53.1%)을 비롯한 수도권(74.9%)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대 광역시 8.6%, 지방 8.3% 등의 순이었다. 해외 기업에는 51개사 1,507억 원(8.2%)이 투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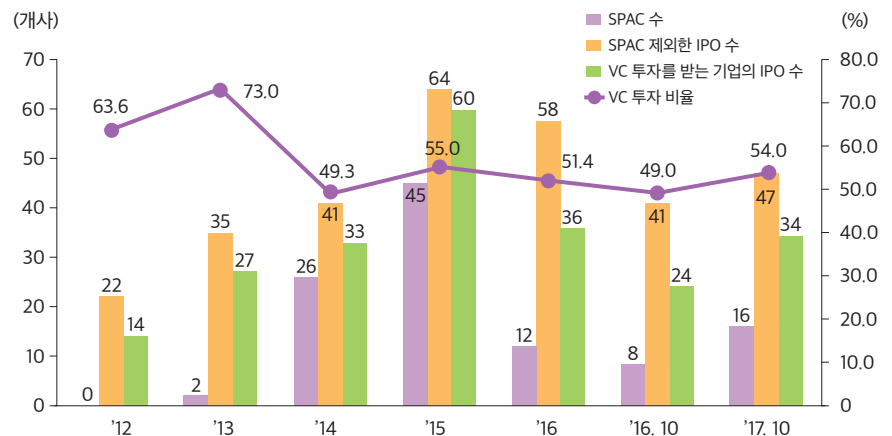


## MARKET TREND

## 투자 회수

## 유형별 회수

- 10월까지 회수원금은 6,616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IPO가 22.5%, 프로젝트가 17.0% 순이었다.
- 특히, 10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57건의 거래를 통해 244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117억 원(48.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111억 원(45.6%)이었다.
- 10월에는 코스닥시장에 4개사(상신전자, 세원, 신한 제4호 기업인수목적, 영화테크)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세원, 영화테크 2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10	2017. 10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2,497	1,484
M&A	72	22	163	150	329	174	202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1,488	1,123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3,004	2,711
	채권	1,165	1,025	1,311	1,045	789	753
기타	188	736	217	342	476	390	343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8,342	6,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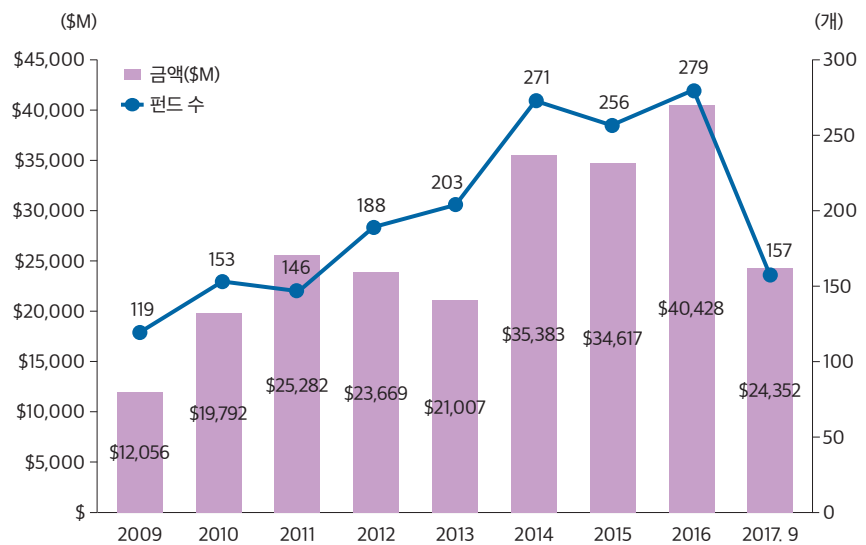
## (VC 포커스) 2017년 3분기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NVCA(미국)에서 발표한 2017년 3분기 통계 요약
- (재원) 미국 157개 24,352백만 달러
- (투자) 미국 5,948건 61,394백만 달러
- (회수) 미국 530건 36,353백만 달러

※ 환율은 2017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46.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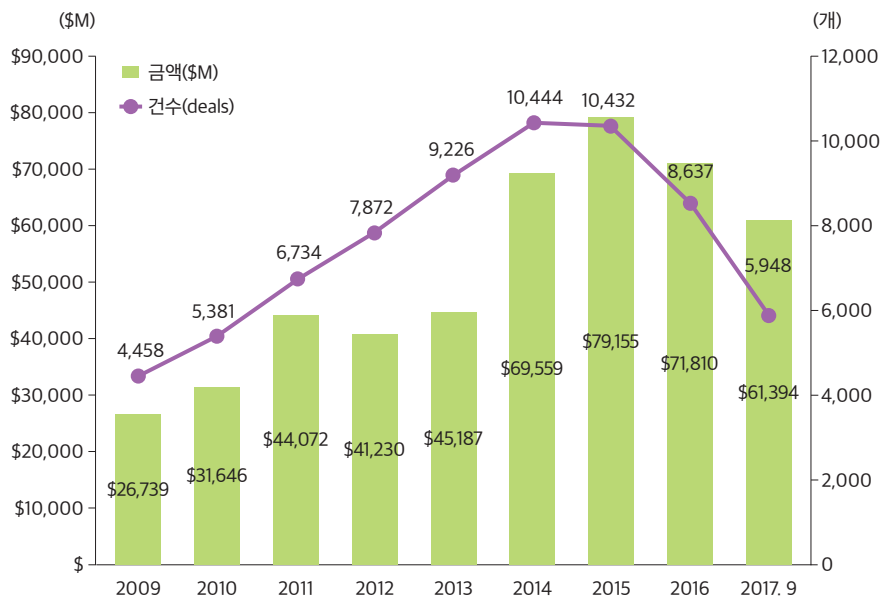
### 재원

- (신규펀드) 2017년 3분기에는 157개의 펀드가 24,352백만 달러(27조 9,196억 원) 규모로 신규결성



### 투자

- (신규투자) 2017년 3분기 신규투자자는 5,948건(Deals), 61,394백만 달러(70조 3,882억 원)를 기록



- 2017년 3분기에는 사무실 공유업체 WeWork Companies와 우주기술 기업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가 가장 높은 신규 VC 투자금액을 유치

#### 2017년 상반기 분기별 신규 투자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Grail Inc.	914	Lyft Inc.	600	WeWork Companies Inc.	3,100
2	Verily Life Science LLC	800	Context Media Health LLC	500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	350
3	Social Finance Inc.	500	Houzz Inc.	400	Auris Surgical Robotics Inc.	280
4	Instacart Inc.	400	Guardant Health Inc.	360	Open Mail LLC	270
5	WeWork Companies Inc.	300	Peloton Interactive Inc.	325	(미발표)	—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성장단계별 신규투자/미국) 17년 3분기에는 Angel/Seed가 감소하고 Later Stage가 증가

#### 성장단계별 신규 투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
Angel/Seed	9.8	11.5	9.4	10.4	9.2	8.2
Early Stage	30.7	32.0	28.6	30.1	32.3	33.0
Later Stage	59.5	56.5	62.0	59.5	58.5	58.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업종별 신규투자/미국) 전통적으로 Software 중심 ICT 서비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에는 46.6%, 2017년 3분기에는 37.8%의 높은 투자비중 기록

#### 업종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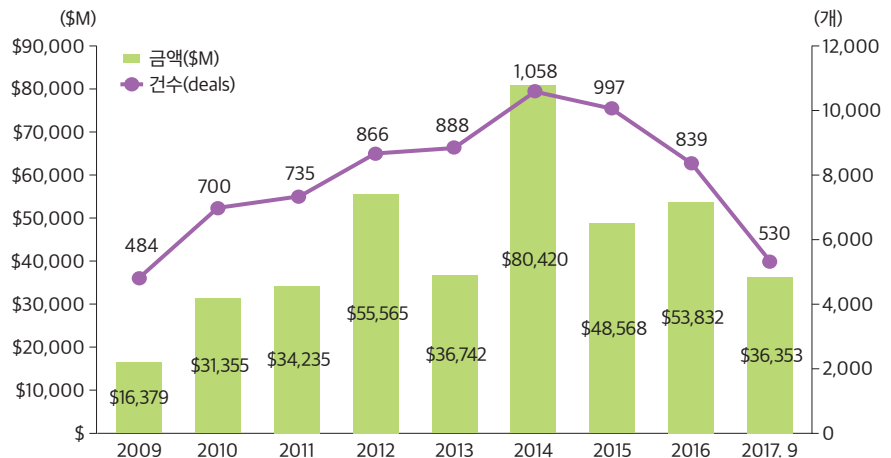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
ICT 제조	6.6	6.4	4.9	3.1	3.7	2.7
ICT 서비스	33.2	34.9	42.9	41.4	46.6	37.8
바이오·의료	24.8	24.7	21.1	22.5	21.5	23.5
환경·에너지	7.2	4.3	3.0	1.6	2.4	1.4
문화콘텐츠	3.2	4.0	3.1	2.6	1.8	2.8
소비재·서비스	4.0	3.7	2.6	3.1	3.0	3.8
유통	7.4	8.4	7.2	6.9	4.7	5.4
기타	13.6	13.6	15.2	18.8	16.3	22.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VC 포커스) 2017년 3분기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회 수

- (회수유형/미국) 2017년 3분기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의 전체 회수금액은 530건 36,353백만 달러(41조 6,787억 원)를 기록



- 2017년 3분기 미국의 IPO는 부동산 중개회사 Redfin이 139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Deciphera Pharmaceuticals(128백만 달러), Roku(126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 2017년 분기별 IPO 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Snap Inc.	3,400	Blue Apron Holdings Inc.	300	Redfin Corp.	139
2	Mule Soft Inc.	221	Cloudera Inc.	225	Deciphera Pharmaceuticals Inc.	128
3	Alteryx Inc.	126	Okta Inc.	187	Roku Inc.	126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2016년 미국의 M&A는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ntacct가 850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Viptela(610백만 달러), Electric Best Doctors(440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 2017년 분기별 M&amp;A 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App Dynamics Inc.	3,700	Chewy Inc.	3,000	Intacct Corp.	850
2	Electric Lightwave Holdings Inc.	1,420	Moat Inc.	850	Viptela Inc.	610
3	SquareTrade Inc.	1,400	Ironplanet Inc.	759	Best Doctors Inc.	440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는 총 1,500억 원 규모로 국내 블라인드 VC 펀드 출자 계획을 공고했다. 노란우산공제회가 VC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운용사 선정은 12월 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실사 등을 거쳐 12월 이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운용 방식	· 블라인드 형태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대상조합	· 한국모태펀드 2017년 3차 출자사업에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재기 지원 분야에 최종 선정된 조합 중 모태펀드가 본 회에게 우선 손실충당금 제공이 가능한 조합
조합 결성기한	· 2017년 이내 결성(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자격 (제한사항)	· 자본시장법상 국내 전문투자자로부터 출자확약된 경우 - 조합결성 전까지 전문투자자로부터 발행된 LOC 제출 조건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 및 핵심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투자기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본 회 출자금액	· 총 1,500억 원 이내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은 11월 8일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Impact 투자, 기업구조혁신 등 3가지 카테고리 펀드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각 펀드별 성격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LP(투자자)로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자펀드 조성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금융은 펀드의 성격을 고려해 다른 앵커 펀드의 매칭펀드로 출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명	혁신성장	Impact 투자	기업구조혁신
특징	적은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집행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펀드
조성금액	·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정책기관에서 3조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와 협업을 진행해 10조 원 조성 예정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총 300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	· 모펀드에 4조 원을 출자하면 이를 자펀드로 나눠 민간 투자를 받아 총 8조 원 규모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 예정 · 성장금융은 40% 내외로 출자비율

한편, 지난 11월 10일에 접수 마감한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의 초기 기업 팔로우온(Follow-on) 투자펀드와 LP 지분 세컨더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사업에 총 28개 운용사가 지원했다. 먼저 초기기업 팔로우온 투자펀드에는 총 25개 후보자가 몰리며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초기기업 팔로우온 출자사업에 운용사들이 대거 몰린 것은 트랙 레코드 등 기준은 완화된 반면 인센티브는 확대되며 높아진 운용 혜택이 매력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펀드는 기존 국내 벤처펀드가 적용한 초기기업의 외형적 요건(설립 3년 이내나 매출 10억 원 이하)에서 벗어나 다양한 초기기업 투자가 허용됐다. 그리고 총 2곳의 운용사를 선정하는 LP 지분 세컨더리펀드에는 3개사가 운용을 제안했다. 성장금융은 12월 중순 경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약 5,3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로 그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 등 10개사가 11월 24일 선정됐다. 9월 공고한 이후 두 달간 제안서 검증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운용사를 선정한 것이다.

사모투자펀드(PEF)부문에 글랜우드 PE·JKL파트너스, 루터소시에이트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에 4,000억 원을 맡기고 벤처캐피탈(VC)부문은 한국투자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LB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K2 인베스트먼트에 1,290억 원을 위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VC 펀드 규모는 예정보다 다소 줄었으나, 운용사로 선정된 한

##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국투자파트너스 등 4곳은 유망서비스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의 창업 초기 성장성에 투자하고 TS·K2인베스트먼트는 한 번 PEF 등이 투자했던 기업에 재투자하는 세컨더리 운용을 준비 중이다. 이들 운용사는 통보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교직원공제회의 출자 약속을 토대로 추가 투자를 받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년도 농금원 모태펀드에 해양수산부는 100억 원을 출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금원의 자펀드 규모는 9,000억 원을 넘겼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자금이 4,000억 원이나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100억 원 출자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금원은 최대한 정부의 출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할 경우 모태펀드 회수자금으로 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체 출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50억~250억 원 수준에서 펀드 3개 내외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 산재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이 총 6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3개 운용사에 나눠 최대 200억씩 출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보험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분부는 11월 24일까지 블라인드 벤처펀드 출자 제안을 받고 심사 등을 거쳐 12월 18일경 운용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은 산재보험 출자금을 포함, 최소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벤처펀드뿐 아니라 블라인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도 1천 500억 원 규모로 출자하고 PEF 운용사 총 3개사에 나눠 배분할 계획이다.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IF)

한국 IT 펀드(KIF) 자조합들이 연내 모두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8월 말 KIF 운용사로 선정된 5곳의 벤처캐피탈(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케이큐브벤처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은 현재 펀드 결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들은 출자자(LP)들이 각자 제시한 규약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이후 결성총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하게 된다. KIF 운용사 선정 이후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다양한 기관들의 출자사업이 연이어 실시됐고, 이는 이들의 자금과 KIF를 매칭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계획을 공고했다. 최대 10억 원을 출자해 3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팩트 투자는 경제적 성과를 기본 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가 달성하는 투자 활동을 말하며,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은 서울시가 출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출자사업 지원 자격은 임팩트 투자 및 펀드 운용 실적이 있는 창업투자사 및 신기술금융사다. GP의 최소 의무출자 비율(GP 커밋)은 20%다. 기준수익률은 운용사가 제안할 수 있으며 관리보수 요율은 연 2.5~3%다. 서울시는 11월 27일까지 출자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구술심사 등을 거쳐 12월 11일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인천시

인천광역시시는 기업의 재기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재기 펀드' 375억 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융자 지원 방식이 아닌 기업에 자금을 직접 수혈하는 방식으로 인천시 최초로 시행되는 투자사업이다. 인천시는 20억 원을 출자하고, 총 375억 원의 펀드 조성액 중 최소 40억 원을 인천 소재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 기업은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재기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과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17일 인천 재기 펀드 운용사로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를 선정했으며, 연내 조합 결성을 마치고 2018년 1월 이후 투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41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mailto:newsletter@kvca.or.kr)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